

수입 구조 분석과 개선 방안

정인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머리말

우리 경제는 지난 1994년 12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후 2년 반 동안 무역수지 적자 행진을 지속하다가 1997년 6월에 흑자를 기록하였다. 6월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2% 증가한 123억 5,000만 달러, 수입은 4.4% 증가한 1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월수출 액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지난 2/4분기중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는데, 4월의 경우 전년 동기에 비해 7.4%, 5월 3.6%, 6월 9.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출 증가의 배경으로는 엔고에 따른 원화 절하와 우리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의 국제 가격 회복을 들 수 있다.

수입은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경기가 호조되면 수입이 증가하고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수입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데 비하여, 최근에는 경기가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4분

기 중에는 노동법 파동과 대기업의 부도로 수출이 -5.4% 감소하고 GDP 성장률이 5.4%에 그쳤는 데 비하여, 수입은 오히려 4.4%나 증가하여 1/4분기중 무역수지는 12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한 1995년 하반기에도 수입은 27% 증가하였고, 지난해의 경우에도 수입은 전년에 비해 11.3%나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수입 구조 분석

1) 용도별 수입 비중 추이

우리나라의 수입 구조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원자재의 비중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재의 비중은 1990~92년에 50% 이상을 웃돌다가 1994~96년에는 50%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1997년 들어 다시 50%대를 회복하였다. 1997년 들어 원자재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1996년 9월 이라크의 쿠르드족 거주 지역 침공 이후 오른 국제 유가에다가 지난해 연말과 금년 초의 구미와

〈표 1〉 용도별 수입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2	1994	1996	1997년 1~4월
총수입액	69,844	81,775	102,248	150,339	49,989
원자재(%)	53.6	52.1	49.7	49.5	53.1
자본재(%)	36.5	37.4	39.7	39.4	36.3
소비재(%)	9.9	10.5	10.6	11.1	10.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동향」, 각호.

북미 지역의 살인적 한파로 연초 대비 20% 이상 오른 국제 유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재의 비중은 1990년 이후 1996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7년에는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히, 1996년의 경우 우리 산업의 경쟁력 취약과 반도체와 철강, 조선 등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의 국제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 조건의 악화로 무역수지 적자가 152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소비재 수입마저 급증함으로써 대외 교역 부문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었다. 1997년에는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총수요가 감소하였고, 민간 단체들에 의한 과소비 추방운동 등에 영향을 받아 소비재 수입 비중의 증가 추세는 한풀 꺾였다. 1990~97년간 소비재의 수입 비중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 반면, 소비재 수입 가운데 유형별 수입 비중은 그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행(「한은정보」, 1996. 10)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소비재 수입 동기를 국내 생산량 부족에 따른 수입, 국산품 가격 경

쟁력 저하에 따른 수입, 고급품 수요 증대에 따른 수입 등 세 가지로 나눌 경우, 1985년에는 곡물과 육류와 같이 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수입이 전체 소비재 수입의 72.7%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고급품 수요 증대에 따른 수입이 23.5%, 마지막으로 국산품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입은 3.9%에 머물렀다. 그러나 약 10년 후인 1996년에는 국내 생산량 부족에 따른 수입은 42.4%로 하락한 대신 국산품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입이 13.7%로 증가하였고, 또한 시장 개방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급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인한 수입이 43.8%로 증가하였다.

2) 무역수지 적자 요인: 대만과의 비교 분석

본 고에서는 지난 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와 대만의 수출입 구조 비교'를 토대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자본재와 에너지의

수입 비중을 우리와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同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은 공통적으로 원료 및 부품의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소비재 비중은 대만보다 낮고 시설재 수입 비중은 대만보다 높다는 점을 차이로 들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부존 자원이 빈약한 데다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와 부품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 비해 취약한 우리의 기계 산업과 빈번한 대형 투자로 우리의 시설재 수입 비중은 대만보다 높으며, 대만의 소비재 수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은 대만이 우리보다는 빨리 시장을 개방하였기 때문으로 同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소비재의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두 나라의 수입 구조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기계류(21.8%), 에너지(18.2%), 전기·전자(15.5%)의 수입 비중이 높은 반면, 대만은 전기·전자(19.8%), 기계류(15.5%), 화학 제품(13.2%)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서 한국은 대만과 다른 수입 구조 상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국은 자본재 발달 미비로 인해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시 일반 기계류에 대

한 수입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수입 비중이 대만보다 훨씬 높아서 동일한 액수를 수출하더라도 외화 가득률에서는 대만에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대만은 소재 산업보다는 가공 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온난한 기후로 인한 난방용 유류의 낮은 소비로 에너지에 대한 수입 비중이 낮아서 국제 유가에 대한 영향을 덜 받을 뿐만 아니라 유류 수입에 대한 지출이 낮다.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형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총수입 가운데 유류 수입에 지출하는 비중이 국제 유가의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국제 유가의 등락은 중동 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OPEC의 국제 유가 목표선인 배럴당 21 달러를 기준으로 볼 때,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1996년 이라크의 쿠르드족 거주 지역 침공 이후 국제 유가는 고유가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의 쿠르드족 거주 지역 침공에 대해 미국이 무력 제재를 행사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었고 유류 확보에 대한 과수요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나타내어 단숨에 배럴당 24 달러대로 상승함으로써 1996년 내내 고유가를 지속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총수입 가운데 에너

지 수입 비중도 16%로 증가하였다. 1996년의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년에 비해 25% 이상 상승한 국제 유가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 구조의 낮은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에 대한 낮은 대체 탄력성 등에서 주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4~96년에는 과거에 계획했던 설비 투자로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경기 침체의 지속과 정부의 자본재 육성 대책으로 1997년에는 자본재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높은 자본재의 수입 비중은 부품과 소재 및 자본재 산업의 발달이 충분하지 못하여 신규 투자와 수출에 소요되는 자본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경제 5개년계획 하의 자본재 국산화 정책의 추진으로 자본재 수입 의존율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시설재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1996년 한 해 동안 일반 기계류의 무역수지는 13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특히, 자본재 산업의 낙후로 우리 산업은 수입 유발적인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본재 수입 의존율과 수입 유발 계수의 비교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생산 설비 구축시에 소요되는 자본재의 수입 의존율은 우리나라가

17%인 데 비해 일본은 6.2%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수입 유발 계수는 0.28(1993년)로 일본의 0.1(1990년)보다 3 배 가량 높다.

3) 지역별 수입 추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입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어보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점차로 감소하고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1990년에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이 전체 수입의 70%를 상회하였으나, 1997년에는 62%대로 하락하였다. 대신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의 21%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에는 37%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 들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증가와 ASEAN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 소비재 수입 증가 때문이다. 금년 1~5월 소비재 수입은 승용차, 담배 등의 수입 감소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 증가한 67억 달러에 그쳤다. 참고로 지난 1993년 이후 소비재 수입 증가율을 살펴보면, 1993년에는 소비재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2.4% 증가하였으나 1994, 95, 96년에는 각각 24.6%, 27.8%, 21.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소비재 수입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비재의 수입 구조도 변하고 있는데, 1994~96년에는 승용차, 화장품, 담배, 모피 의류와 골프 용구 등 고급 사치품의 수입이 매년 50~100%씩 증가하였으나, 금년에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사치재의 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하락하거나 예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급 소비재의 수입이 최근에 감소하는 가운데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 포도주 등 기호 식품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월간 중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채소와 과일류, 의류 및 신발류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7월부터 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저가 농수산물의 수입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입 비중에 있어서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개도국에 비해 2 배 이상 높은 것은 소비재에 대한 수입 허용 폭이 낮은 반면, 기계 설비와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부품 등을 주로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재의 수입에 대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를 보면 1994년까지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 가운데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6년 이후에는 미국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4~5 년간 미국은 21~22% 내외에서 안정된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나, 일본은 1990년 27%의 점유율에서 19%로 급격한 하락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년 7월 이후 유압브레이크, 화물선, 1,000 cc 이하의 소형차 등 14 개 품목이 수입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되어 일본으로부터의 직수입이 허용되었고, 현재 수입 다변화 품목으로 묶여 있는 113 개 품목도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여, 엔화 환율의 향배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미국의 비중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ASEAN과 대양주의 수입 점유율은 각각 8%와 4%대 내외에서 안정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4~96년간에 EU로부터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1997년 들어서는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들어 ASEAN, 중국,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들 개도국과 우리나라와의 무역 거래도 증가해왔다. 1996년 우리나라 전체 교역 가운데 개도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4.3%에 달했으며, 거래 규모로는 1,241억 달러(수출 724억 달러, 수입 517억 달러)를 기록

〈표 2〉 지역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2	1994	1996	1997 상반기 ¹⁾
선진국	49,771 (71.3) ²⁾	54,199 (66.3)	69,106 (67.5)	98,666 (65.5)	44,347 (62.7)
개도국	14,790 (21.2)	20,544 (25.1)	33,242 (32.5)	51,673 (34.4)	26,430 (37.3)
미국	16,942 (24.3)	18,287 (22.4)	21,579 (21.1)	33,305 (22.2)	15,242 (21.5)
일본	18,574 (26.6)	19,458 (23.8)	25,390 (24.8)	31,449 (20.9)	13,702 (19.4)
EU	8,421 (12.1)	9,585 (11.7)	14,536 (14.2)	21,204 (14.1)	9,096 (12.9)
ASEAN	5,086 (7.3)	7,055 (8.6)	7,722 (7.5)	12,054 (8.0)	6,143 (8.7)
중국	2,268 (3.2)	3,725 (4.6)	5,463 (5.3)	8,539 (5.7)	4,570 (6.5)
대양주	3,201 (4.6)	3,816 (4.7)	4,789 (4.7)	7,404 (4.9)	3,333 (4.7)

자료: 무역협회, 「무역동향」, 각호.

- 주: 1) 통산부, 「97년 상반기중 수출입 동향」에서 발췌함.
- 2) 우리나라의 총수입에 대한 비중임.

하였다. 1995년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50.1%)이 선진국을 앞질렀으며, 1996년에는 724억 달러의 수출(전체 수출의 55.8%)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對선진국과의 교역에서 41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對개도국과의 교역에서 208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개도국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선진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 약 절반을 상쇄시켜주었다. 우리나라와 개도국과의 대외 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지

역주의의 확산과 선진국에서의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과 같은 외부적 요인외에도 우리 기업의 시장 다변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1995년 190억 달러, 1996년 207.5억 달러)를 누려왔으나, 금년 들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무역 흑자 폭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가 인상과 경쟁 격화로 인한 수출 위축으로 1997년 상반기중 對개도국 무역수지는 71.8억 달러에 그쳐, 현 추세라면 1997년중 對개도국

무역수지는 1996년에 비해 25% 정도 하락할 전망이다. 금년 1/4분기에는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도입이 증가하여 對중동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되었으나, 2/4분기 들어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서 원유 도입 단가가 예년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對중동 무역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무역수지 개선 방안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은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수입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으나, 여기서는 수입을 줄이는 방안만을 논의하도록 한다. 수입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거시경제적 측면, 산업 구조적 측면, 통상 정책적 측면과 기타 에너지 정책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1) 거시경제적 측면

수입 억제를 위한 거시경제적 정책으로는 통화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정 지출의 긴축을 통해서 총수요를 줄이는 방법과 소비 수요 축소를 통한 저축 증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총수요의 축소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내 물가의 안정은 국

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수입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 증가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석,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고가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를 인상하고, 사치성 소비 업소에 대한 세무를 강화하는 등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미시적 금융·세제 상의 정책 수단의 동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가 고급화되면서 가계 수입 가운데 소비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개인 금융 저축률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 저축에 대한 면세 혹은 소득 공제 범위의 확대와 같은 저축 증대를 위한 세제 상의 우대제도의 설립과 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산업 구조적 측면

그러나 총수요 감소와 세제·금융 상의 정책으로 수입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이후 임금 상승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지가도 상승함에 따라 우리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잃었는데, 특히 소비재의 경우 수입 소비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가격 경쟁력 회복을 위

해서는 먼저 위에서 논의한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하며,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의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디자인과 애프터서비스 등 비가격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 임금, 물류비 등 저효율과 고비용의 근원을 개선하는 정책과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주요 업종에 대한 경쟁력 확충, 자본재 산업 육성 시책 등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계·금융 상의 지원 강화가 필요한데, 기업의 연구 개발비와 신상품 개발비 등에 대해서는 WTO 체제 하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도 경쟁 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고 연구 개발(R&D) 투자를 늘림으로써 개방화된 교역 환경에서 수입재와 경쟁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1996년의 경우 138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일반 기계류 등 자본재의 핵심 부품을 조기에 국산화하도록 정부 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재의 국산화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국산화된 기계류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불신감으로 인해 국산 기계류가 국내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재 산업의 육성을 꾸준히 추진함과 아울러 국산 자본재 상호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세계·금융 상의 지원, 자본재종합정보망의 구축, 플랜트 수출시 국산 자본재 사용 확대 등의 국산 자본재 내수 확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통상 정책적 측면

통상 정책적 측면으로는 단기간에 수입이 급증하거나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조정 관세와 특별 긴급 관세를 WTO 하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난해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수입 농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농약과 같이 인체에 해로운 독성 물질뿐만 아니라, 식품 유통기한과 원산지표시제도 및 완구류와 문방구 등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히 실시하여 무분별한 수입을 막아야 한다. 수입병행제도 수입품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로 고안되었으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업체간 유명 브랜드의 과열 수입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 다변화 품목의 축소는 엔화

의 향배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완전 해제보다는 일본과의 무역수지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90년대 이후 소비 고급화와 소비 증대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와 귀금속 등의 수입 증가는 유명 브랜드 선호에 대한 불합리한 소비 관행과 소비자 정보 미흡에도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수입 물품의 원산지과 수입 가격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수입품과 국산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등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의 편견을 시정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입품의 평균 마진율이 국산품의 5.2 배에 달하고 있어 수입 업자의 수입 유인이 존재하는데 세무 당국은 그와 같은 부당 이익에 대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에너지 정책 측면

1996년에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에 대한 대금 지불에만 144억 달러를 지출하여

총수입액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출 비중이 높아, 산업 부문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는 산업 전반의 구조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995년 에너지 순수입액의 對GNP 비중은 3.6%로 선진국의 3 배에 해당하며, 우리와 경쟁국인 대만의 2.5%와 비교해서는 월등히 높아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낭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대만과의 비교는 기후 차이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차이를 이유로 들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석유화학, 철강 금속 등 에너지 과다 소비형 산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용 에너지의 80%를 소비하는 노후 보일러 및 요업용窯과 철강 산업용 고로의 개량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상의 지원,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열병합 발전 사업의 지속적 확대, 지역난방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지원 강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확대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